

부록

1_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⁷⁵⁾

(1) 일반기준

- 가.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나.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사육환경

- ①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여야 한다.

나. 건강관리

- ①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②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⁷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2)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⁷⁶⁾

(1) 일반사항

- 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 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다. 축종, 품종, 나이,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라.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마. 보호센터는 방문목적이 합당한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하며, 방문 시 방문자 성명,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 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 바. 보호 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별사항

- 가. 동물의 구조 및 포획은 구조자와 해당 동물 양측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구조 직후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지 아니한 개체는 추가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보호동물 입소 시 개체별로 별지 제7호 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 다. 보호 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 해당 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재분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⁷⁶⁾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5

한다.

- 라. 보호 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재유기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미성년자에게 분양해서는 아니 된다.
- 마. 제2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1명 이상의 입회하에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하며,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바.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3)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⁷⁷⁾

① 일반기준

-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위탁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⁷⁷⁾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4

② 개별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 가) 소형견(5kg 미만) : $50 \times 70 \times 60(\text{cm})$
 -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 $70 \times 100 \times 80(\text{cm})$
 - 다) 대형견(15kg 이상) : $100 \times 150 \times 100(\text{cm})$
 - 라) 고양이 : $50 \times 70 \times 60(\text{cm})$
- 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

격이어야 한다.

- 3)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_반려동물 보유와 동물복지지원시설 수요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서울시민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보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동물학대 증가, 유기동물 증가 등의 부정적 현상이 늘어나는 반면,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시민 교육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
- 본 과업은 서울시민(반려동물 보유자 및 비보유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육 동기 및 실태, 반려동물 사육 시 애로사항 등 일반적 현황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의 필요성과 기능, 공공사업으로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서울시 반려동물 복지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

[부록 표 1] 조사 목적

조사대상	주요 획득 정보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일반 성인 -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반려동물 보유자 및 비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사육 계기 및 현황 · 반려동물 사육 시 애로사항 ·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 인지도 ·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태도(우선 필요 사업 등) ·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중요 역할 · 표본 특성 정보 : 성, 연령, 지역, 직업,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 규모, 소득수준, 가족 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와 차별적 역할 및 기능 분담 방향 제시 ·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의 공익과 시민 편익에 대한 가치 평가

(2)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 등 정책 입안 관련 반려동물 사육자 및 비사육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육자와 비사육자의 표본 구성을 균등하게 함. 표본 추출은 성별 및 연령, 거주 지역 등의 서울시 모집단 분포(서울시 주민등록현황 분포(통계청, 2015. 12))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반려동물 사육자의 경우 응답자 선정 과정에서 반려동물 사육자를 무작위로 추출(Random Sampling)하였으므로 서울시 인구비례 분포와는 차이를 보임
-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Web 설문에 의한 온라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50대 후반 이상 연령대의 경우 온라인조사로는 표본 확보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별면접조사를 병행함(개별면접조사 표본 수 : 56표본, 5.5% 비중)
총 유효표본 수는 1,014명이고, 반려동물 사육자 507명, 비사육자 507명으로 균등 할당함(95% 신뢰구간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범위는 ± 3.1)

[부록 표 2]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반려동물 사육자 및 비사육자
표본추출	· 표본구성의 틀 : 2015년 통계청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분포 · 표본추출방법 : 모집단 인구분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 기본할당 : 반려동물 사육 여부에 따른 균등할당 - 기타할당 : 성, 연령, 거주지역별 인구 분포에 따른 비례 표본 할당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및 개별면접조사 병행 - 통계청 인구센서스 통계 분포에 따라 구축된 서울지역 조사 전문패널 - 50대 후반 연령대에서 개별 면접조사 병행(총 56 표본, 5.5% 비중)
표본크기 및 표본오차	· 표본크기 : 1,014표본(유효표본 기준) · 표본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3.1\%$ - 표본오차 산출 공식(95% 신뢰구간) : $\pm 1.96 \times \sqrt{p(1-p)/n}$ ※ n=표본크기, P=모집단에서 표본 비율이 될 확률(0.5)
조사시점	· 2016년 3월 25일 ~ 4월 4일(11일간)

① 모집단 분포

- 서울시 자치구별로 성, 연령에 따른 인구 분포는 아래와 같으며, 표본 구성의 기준이 됨(자료 : 통계청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현황, 2015년 12월 말 기준)

[부록 표 3] 서울시 모집단 분포

구 분		연령별 분포(단위 : 백 명)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서울시 전체	계	14,500	17,195	17,004	24,996	73,695
	남	7,244	8,649	8,472	12,039	36,404
	여	7,256	8,546	8,532	12,957	37,291
종로구	계	232	225	267	401	1,125
	남	118	113	132	198	561
	여	114	112	135	203	564
중구	계	180	213	206	343	942
	남	91	109	108	171	480
	여	88	104	98	172	462
용산구	계	312	408	398	567	1,685
	남	153	202	201	271	827
	여	159	206	197	295	858
성동구	계	432	524	502	726	2,185
	남	219	265	258	358	1,100
	여	213	259	244	368	1,085
광진구	계	596	649	615	872	2,731
	남	291	326	303	423	1,344
	여	305	323	311	449	1,387
동대문구	계	539	599	581	937	2,655
	남	281	310	301	455	1,347
	여	258	289	280	482	1,308
종각구	계	595	675	696	1,126	3,092
	남	299	352	353	553	1,556
	여	297	323	343	573	1,536
성북구	계	665	764	805	1,152	3,385
	남	330	384	409	549	1,671
	여	335	380	396	603	1,714
강북구	계	435	529	560	906	2,430
	남	221	275	283	425	1,203
	여	214	255	277	481	1,227
도봉구	계	485	523	602	955	2,566
	남	250	265	293	462	1,270
	여	236	258	309	493	1,296
노원구	계	781	874	1,069	1,405	4,127
	남	401	431	513	674	2,019
	여	379	442	556	731	2,108
은평구	계	647	831	847	1,259	3,584
	남	322	417	422	595	1,757
	여	325	413	425	664	1,827

구 분		연령별 분포(단위 : 백 명)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서대문구	계	460	488	519	769	2,238
	남	230	246	259	363	1,099
	여	231	242	260	406	1,139
마포구	계	569	727	650	849	2,794
	남	270	355	327	397	1,350
	여	298	372	323	452	1,445
양천구	계	652	709	922	1,193	3,476
	남	332	349	443	596	1,720
	여	320	360	480	596	1,756
강서구	계	818	1,052	927	1,443	4,240
	남	404	533	459	689	2,086
	여	414	518	468	754	2,154
구로구	계	572	795	681	1,080	3,128
	남	287	409	353	525	1,573
	여	285	386	329	555	1,555
금천구	계	346	392	403	643	1,784
	남	183	213	207	320	923
	여	163	179	196	322	861
영등포구	계	546	697	620	966	2,829
	남	269	358	322	476	1,425
	여	277	338	298	491	1,404
동작구	계	641	751	634	996	3,023
	남	320	383	321	465	1,488
	여	322	368	314	532	1,535
관악구	계	932	1,025	775	1,216	3,948
	남	469	559	409	572	2,010
	여	463	466	366	644	1,938
서초구	계	599	779	790	1,015	3,182
	남	287	363	383	482	1,515
	여	311	416	407	532	1,667
강남구	계	837	997	1,008	1,310	4,152
	남	399	460	471	626	1,955
	여	438	537	537	685	2,197
송파구	계	950	1,166	1,139	1,612	4,867
	남	468	563	554	782	2,367
	여	482	603	584	830	2,499
강동구	계	678	805	788	1,255	3,526
	남	350	408	390	611	1,759
	여	328	396	399	645	1,767

자료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현황(통계청, 2015년 12월 말 기준)

② 표본 구성

- 본 조사의 총 표본은 유효표본 기준으로 1,014표본이며, 반려동물 사육자 507명, 비사육자 507명으로 구성함
- 반려동물 사육 여부에 따른 표본 구성은 응답자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 인구비례에 따른 분포를 기본 할당기준으로 하여 반려동물 사육자를 무작위로 추출(Random Sampling)한 결과로, 30대 이하 연령대 및 동남권 및 도심권 거주자, 주택규모가 큰 가구, 가구소득이 많은 가구에서 사육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4] 반려동물 사육 여부에 따른 표본 구성

구 분		표본 수	반려동물 사육 여부(단위 : %)	
			사육자	비사육자
전 체		1,014	50.0	50.0
성별	남성	503	53.3	46.7
	여성	511	46.8	53.2
연령	20대	245	57.1	42.9
	30대	283	53.4	46.6
	40대	266	42.5	57.5
	50대 이상	220	46.8	53.2
권역	도심권	68	63.2	36.8
	동북권	309	48.2	51.8
	서북권	131	45.0	55.0
	서남권	292	48.6	51.4
	동남권	214	53.3	46.7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46.4	53.6
	2~3인	450	49.6	50.4
	4인	390	50.0	50.0
	5인 이상	90	55.6	44.4
주택형태	아파트	545	49.9	50.1
	단독/다가구	139	56.8	43.2
	연립/빌라	320	47.2	52.8
	기타	10	50.0	50.0
주택규모	20평(66㎡) 미만	246	41.9	58.1
	20~30평(99㎡) 미만	322	48.8	51.2
	30~40평(132㎡) 미만	318	53.8	46.2
	40평(132㎡) 이상	128	59.4	40.6
가구소득 (월평균)	299만 원 이하	256	44.1	55.9
	300~499만 원	332	47.3	52.7
	500~699만 원	276	54.0	46.0
	700만 원 이상	150	58.7	41.3

(3) 조사 진행

① 온라인 조사 진행 과정

-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사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여 표본에 대한 대표성 및 신뢰도를 높였음

[부록 표 5] 온라인 조사 진행 과정

구분	내용
Sampling 계획 수립 (표본 설계)	· 자치구별 Sampling 계획 수립
Sampling 계획에 따른 Panelist 추출	· Sampling 계획에 따른 각 Cell별로 온라인 Panelist 구분 · 자치구별 거주자 대상 Panelist 추출(온라인조사 예비대상으로 선정)
Panel Sampling	· 온라인 Panel 회원 중 조사대상에 적합한 리스트 선별 및 랜덤 추출 · 최근 3개월 내 유사 조사 참여자 배제(조사 참여일, 참여 조사 종류 등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Panel 추출을 위한 기초 Filtering 자료로 활용)
Web 설문 개발	· 온라인 특성에 맞는 설문 디자인 및 pilot test를 통해 설문의 완성도 제고 · 추출된 Panel의 1/10에게 먼저 E-mail을 보내고 오류 유무 확인, 문제점 파악 및 보완 · 1차 완성된 Web 설문에 대한 Client Test 후 최종 확정 · 온라인 설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구현(2일 이내)
E-mail 발송 및 자료 수집	· 최종 표본으로 추출된 Panel 대상으로 매일 1/3씩 3회에 걸쳐 Web 설문 E-mail 발송 · 설문진행 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효율적 일정관리
응답 Data Cleaning 및 검증	· 전체 응답 항목 대비 응답 시간 확인 - 응답시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긴 응답자는 불성실 응답으로 규정하고 유효샘플에서 제외 · Logic Error 및 Outliner 확인(발생 불가한 사항 및 Outliner의 경우 자료처리에서 제외) · 무응답 표본 관리(주요문항에서 무응답, 무응답 비중이 높은 표본은 유효 표본에서 제외)

② 온라인 조사 패널(Panel) 특성

- 온라인 패널(Panel)은 특정한 채널에서 다량 모집 방식이 아닌 100개 이상의 다양한 제휴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어 패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 서울시 온라인 조사 패널(Panel)은 Active Panel 기준으로 160,495건으로, 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함

[부록 표 6] 서울시 온라인 조사 패널(Panel) 구축 현황

구분	설명
온라인 모집채널	· 키워드 AD(총 4개 채널) : 네이버, 다음, 오버쳐어 · 배너 Display AD(총 50여 개 채널) : 페이스북, 교보문고, 이베이 · 타겟 E-mail AD(총 50여 개 채널) : KCP, Maxxcard, HEZOUN
모바일 모집채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D(총 10개 채널) : STARPL, goldenax, HEZOUN
오프라인 모집채널	편의점 Display AD / Free Note AD(총 5개 채널)



서울시 응답자 패널 : 160,495명						
성별	구분	패널 수		구성비(%)		
	여자	80,729		49.7		
	남자	79,766		50.3		
연령별	19세 이하	12,519		7.8		
	20~29	35,951		22.4		
	30~39	42,371		26.4		
	40~49	39,963		24.9		
	50~59	23,111		14.4		
	60세 이상	6,580		4.1		
자치구별	구분	패널 수	구성비(%)	구분	패널 수	구성비(%)
	종로구	3,370	2.1	마포구	6,580	4.1
	중구	3,049	1.9	양천구	5,778	3.6
	용산구	3,852	2.4	강서구	8,346	5.2
	성동구	4,333	2.7	구로구	5,938	3.7
	광진구	6,580	4.1	금천구	3,531	2.2
	동대문구	5,296	3.3	영등포구	6,420	4.0
	종량구	5,296	3.3	동작구	7,062	4.4
	성북구	6,420	4.0	관악구	8,827	5.5
	강북구	4,494	2.8	서초구	8,025	5.0
	도봉구	4,654	2.9	강남구	15,408	9.6
	노원구	9,309	5.8	송파구	9,630	6.0
	은평구	6,259	3.9	강동구	6,901	4.3
	서대문구	4,815	3.0			

(4) 조사 내용

구 분	세부 조사 내용
반려동물 사육경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육 경험 · 사육 반려동물(개, 고양이) 종류 · 반려동물 사육 계기/배경 · (반려동물 비사육자) 반려동물 사육 중단 이유 / 경험이 없는 이유 · (반려동물 비사육자) 향후 반려동물 사육 의향 ·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경험
반려동물 사육자 실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한 노력 · 반려동물 사육 시 애로사항 · 반려동물 유기 충동 경험 · 향후 반려동물 재사육 의향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인지정도 · 외국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지원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역할이나 입장에 대한 인식 ·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중요 역할 방향 ·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 시 우선 담당 사업 · 주변에 선진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 시 태도
표본 특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연령, 거주 지역, 주택형태, 주택규모, 소득 수준, 학력, 직업, 가족 구성원 수 등

(5) 응답자 표본 특성

[부록 표 기] 응답자 표본 특성

구 분		사례 수	구성비(%)
전 체		1,014	100.0
반려동물 보유여부	보유자	507	50.0
	비보유자	507	50.0
성별	남성	503	49.6
	여성	511	50.4
연령	20대	245	24.2
	30대	283	27.9
	40대	266	26.2
	50대 이상	220	21.7
권역	도심권	68	6.7
	동북권	309	30.5
	서북권	131	12.9
	서남권	292	28.8
	동남권	214	21.1
자치구	종로구	29	2.9
	중구	15	1.5
	용산구	24	2.4
	성동구	33	3.3
	광진구	36	3.6
	동대문구	37	3.6
	종량구	38	3.7
	성북구	40	3.9
	강북구	28	2.8
	도봉구	32	3.2
	노원구	65	6.4
	은평구	54	5.3
	서대문구	32	3.2
	마포구	45	4.4
	양천구	39	3.8
	강서구	52	5.1
	구로구	39	3.8
	금천구	20	2.0
	영등포구	40	3.9
	동작구	38	3.7
	관악구	64	6.3
	서초구	47	4.6
	강남구	56	5.5
	송파구	74	7.3
	강동구	37	3.6

구 분		사례 수	구성비(%)
전 체		1,014	100.0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8.3
	2인	168	16.6
	3인	282	27.8
	4인	390	38.5
	5인 이상	90	8.9
주택 형태	아파트	545	53.7
	단독/다가구	139	13.7
	연립/빌라/다세대	320	31.6
	기타	10	1.0
주택 규모	10평(33㎡) 미만	56	5.5
	10~20평(66㎡) 미만	190	18.7
	20~30평(99㎡) 미만	322	31.8
	30~40평(132㎡) 미만	318	31.4
	40~50평(165㎡) 미만	91	9.0
	50평(165㎡) 이상	37	3.6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36	3.6
	100~199만 원	83	8.2
	200~299만 원	137	13.5
	300~399만 원	154	15.2
	400~499만 원	178	17.6
	500~599만 원	172	17.0
	600~699만 원	104	10.3
	700만 원 이상	150	14.8
직업	경영/관리직	48	4.7
	전문직	95	9.4
	사무직	438	43.2
	전문기술직	32	3.2
	판매/서비스직	42	4.1
	단순노무/생산/ 단순기술직	32	3.2
	자영업	70	6.9
	주부	132	13.0
	학생	92	9.1
	기타	33	3.3

※ 권역 구분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종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 세부 조사 결과

(1) 반려동물 사육 경험 관련

① 반려동물 사육 비율

- 질문 : 귀하께서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 현재 반려동물 사육 비율⁷⁸⁾은 20.4%로 5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반려동물 사육 경험이 있으나 현재 키우지 않고 있는 경우는 5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려동물 사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77.2%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 반려동물 사육 비율을 표본 특성별로 보면, 서초구 및 강남구, 송파구 등의 동남권 거주자 및 용산구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⁷⁸⁾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육 비율 도출을 위해 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대상자(N=1,553)까지 포함한 접촉 대상자 전체(N=2,567)를 모수로 하였으며, 서울시 인구통계 분포에 맞도록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여 도출된 결과임

[부록 표 8] 반려동물 사육 비율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사육 경험			반려동물 사육 여부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과거에는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는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다	사육자	비사육자
전 체		2,567	20.4	56.8	22.8	20.4	79.6
권역	도심권	134	21.8	48.8	29.4	21.8	78.2
	동북권	812	21.4	54.2	24.3	21.4	78.6
	서북권	295	17.3	57.7	25.0	17.3	82.7
	서남권	776	17.7	60.0	22.2	17.7	82.3
	동남권	550	23.9	57.3	18.8	23.9	76.1
자치구	종로구	41	21.4	44.0	34.5	21.4	78.6
	중구	33	18.0	52.5	29.5	18.0	82.0
	용산구	60	24.1	50.0	25.9	24.1	75.9
	성동구	77	18.6	51.4	30.0	18.6	81.4
	광진구	96	22.0	40.7	37.4	22.0	78.0
	동대문구	91	17.8	60.0	22.2	17.8	82.2
	종량구	107	20.9	60.4	18.7	20.9	79.1
	성북구	120	18.9	49.5	31.5	18.9	81.1
	강북구	84	31.0	36.2	32.8	31.0	69.0
	도봉구	90	22.0	71.2	6.8	22.0	78.0
	노원구	147	21.3	60.3	18.4	21.3	78.7
	은평구	118	22.9	56.5	20.6	22.9	77.1
	서대문구	79	13.3	64.4	22.2	13.3	86.7
	마포구	98	13.8	53.7	32.5	13.8	86.2
	양천구	122	19.0	68.6	12.4	19.0	81.0
	강서구	144	16.3	49.6	34.1	16.3	83.7
	구로구	106	14.9	58.8	26.3	14.9	85.1
	금천구	62	11.4	47.1	41.4	11.4	88.6
	영등포구	102	21.3	64.8	13.9	21.3	78.7
	동작구	101	21.1	58.7	20.2	21.1	78.9
	관악구	139	18.1	67.5	14.5	18.1	81.9
	서초구	108	24.8	54.3	21.0	24.8	75.2
	강남구	145	25.4	53.2	21.4	25.4	74.6
	송파구	173	23.5	58.0	18.5	23.5	76.5
	강동구	124	22.1	63.7	14.2	22.1	77.9
성별	남성	1285	21.2	57.7	21.1	21.2	78.8
	여성	1282	19.6	55.9	24.6	19.6	80.4
연령	20대	550	25.9	43.3	30.8	25.9	74.1
	30대	733	21.1	57.0	21.9	21.1	78.9
	40대	660	17.7	63.0	19.3	17.7	82.3
	50대 이상	624	17.6	61.7	20.7	17.6	82.4

② 반려동물 사육자 특성

○ 질문 : 귀하께서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 현재 반려동물 사육 가구 특성을 보면,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반려동물

사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또한 단독/다가구 거주자와 주택규모가 클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도심권의 경우 반려동물 사육 비율이 30.6%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5인 이상 가구와 40평(132㎡) 이상 가구,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가구소득계층에서 반려동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9] 반려동물 사육자 비중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사육 여부	
			사육자	비사육자
전 체		1,014	20.4	79.6
성별	남성	483	22.6	77.4
	여성	531	18.4	81.6
연령	20대	224	25.5	74.5
	30대	272	22.7	77.3
	40대	290	15.9	84.1
	50대 이상	228	18.4	81.6
권역	도심권	57	30.6	69.4
	동북권	316	19.3	80.7
	서북권	139	17.4	82.6
	서남권	297	19.5	80.5
	동남권	206	22.6	77.4
가족 구성원 수	1인	88	18.2	81.8
	2인	167	20.8	79.2
	3인	286	19.7	80.3
	4인	390	20.4	79.6
	5인 이상	84	24.3	75.7
주택형태	아파트	546	20.4	79.6
	단독/다가구	128	25.2	74.8
	연립/빌라	331	18.6	81.4
	기타	10	20.4	79.6
주택규모	20평(66㎡) 미만	270	15.6	84.4
	20~30평(99㎡) 미만	327	19.6	80.4
	30~40평(132㎡) 미만	304	23.0	77.0
	40평(132㎡) 이상	114	27.3	72.7
가구소득	299만 원 이하	274	16.9	83.1
	300~499만 원	343	18.7	81.3
	500~699만 원	263	23.1	76.9
	700만 원 이상	135	26.7	73.3

주: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③ 사육 반려동물 종류

- 질문 : 귀하께서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종류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반려동물 사육가구 중에서 개를 사육하는 가구가 전체의 85.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양이를 사육하는 경우는 26.6%로 나타남
 - 반려동물 사육가구 중에서 개만 사육하는 경우가 73.4%로 4가구 중 3가구 꼴로 나타났으며, 고양이만 사육하는 경우는 14.2%, 개와 고양이를 함께 사육하는 경우는 12.4%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20~30대 연령층에서 개와 고양이를 함께 사육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개만 사육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1인 가구와 월평균 299만 원 이하 가구소득계층의 경우는 고양이만 사육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5인 이상 가구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개와 고양이를 함께 사육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0] 사육 반려동물 종류 및 현황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종류 (복수응답)		반려동물 사육 현황			X ²
			개	고양이	개만 사육	고양이만 사육	개+고양이 사육	
전 체		507	85.8	26.6	73.4	14.2	12.4	
성별	남성	268	88.1	26.9	73.1	11.9	14.9	4.909
	여성	239	83.3	26.4	73.6	16.7	9.6	
연령	20대	140	86.4	27.9	72.1	13.6	14.3	14.700*
	30대	151	83.4	33.8	66.2	16.6	17.2	
	40대	113	82.3	26.5	73.5	17.7	8.8	
	50대 이상	103	92.2	14.6	85.4	7.8	6.8	
가족 구성원 수	1인	39	64.1	38.5	61.5	35.9	2.6	36.041***
	2인	85	84.7	21.2	78.8	15.3	5.9	
	3인	138	89.1	23.9	76.1	10.9	13.0	
	4인	195	89.2	23.6	76.4	10.8	12.8	
	5인 이상	50	82.0	46.0	54.0	18.0	28.0	
주택 형태	아파트	272	86.4	27.9	72.1	13.6	14.3	11.627
	단독/다가구	79	88.6	24.1	75.9	11.4	12.7	
	연립/빌라	151	84.8	24.5	75.5	15.2	9.3	
	기타	5	40.0	60.0	40.0	60.0	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113	81.4	23.0	77.0	18.6	4.4	15.132*
	300~499만 원	157	86.6	24.2	75.8	13.4	10.8	
	500~699만 원	149	89.3	29.5	70.5	10.7	18.8	
	700만 원 이상	88	84.1	30.7	69.3	15.9	14.8	

BASE : 반려동물 사육자(N=507), * P<0.05, ** P<0.01, *** P<0.001

④ 반려동물 사육 주요 계기

- 질문 : 귀하께서는 반려동물(개 또는 고양이)을 어떤 계기로 키우게 되었습니까?
 - 반려동물 사육자의 경우 반려동물이 ‘예쁘고 귀여워서’ 사육하게 된 경우가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선물 등 우연한 기회가 되어서’ 17.0%, ‘아이들 정서상 교육 목적으로’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자녀 교육 목적이나 외로움 해소 등의 구체적인 목적보다는 반려동물이 예쁘고 귀엽거나 우연한 기회로 사육하는 등 1차적 계기로 사육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20대 연령층 및 월평균 299만 원 이하 가구소득계층의 경우 ‘외로워서’ 사육하게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40대 연령층 및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가구소득계층의 경우는 ‘자녀 정서상 교육 목적으로’ 사육하게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한편, 30대 연령층 및 3인 가구, 단독/다가구 거주자, 월평균 700만 원 이상 가구소득계층의 경우는 ‘예쁘고 귀여워서’ 사육하게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표본 특성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 계기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임

[부록 표 11] 반려동물 사육 주요 계기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사육 주요 계기(단위 : %)						χ ²
			예쁘고 귀여워서	선물을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아이들 정서상 교육 목적으로	외로워서	유기견/ 동물들이 불쌍해서	기타	
전 체		507	53.3	17.0	14.8	12.8	1.2	1.0	
성별	남성	268	59.0	14.6	14.6	11.2	0.4	0.4	11.933
	여성	239	46.9	19.7	15.1	14.6	2.1	1.7	
연령	20대	140	56.4	17.9	2.9	21.4	0.7	0.7	58.299***
	30대	151	58.3	12.6	14.6	11.3	1.3	2.0	
	40대	113	53.1	10.6	24.8	8.0	2.7	0.9	
	50대 이상	103	41.7	29.1	20.4	8.7	0.0	0.0	
가족 구성원 수	1인	39	41.0	15.4	2.6	38.5	2.6	0.0	65.663***
	2인	85	50.6	17.6	5.9	18.8	2.4	4.7	
	3인	138	60.9	10.9	16.7	10.1	1.4	0.0	
	4인	195	51.3	20.5	19.5	8.2	0.0	0.5	
	5인 이상	50	54.0	20.0	16.0	8.0	2.0	0.0	
주택 형태	아파트	272	48.9	15.8	21.7	12.1	0.7	0.7	31.340**
	단독/다가구	79	60.8	12.7	10.1	13.9	2.5	0.0	
	연립/빌라	151	56.3	21.9	5.3	13.2	1.3	2.0	
	기타	5	80.0	0.0	0.0	20.0	0.0	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113	41.6	22.1	8.0	26.5	0.9	0.9	39.687***
	300~499만 원	157	53.5	16.6	14.0	13.4	1.3	1.3	
	500~699만 원	149	57.0	15.4	18.8	6.0	1.3	1.3	
	700만 원 이상	88	61.4	13.6	18.2	5.7	1.1	0.0	

BASE : 반려동물 사육자(N=507), * P<0.05, ** P<0.01, *** P<0.001

⑤ 반려동물 사육 중단 이유

- 질문 :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다가 현재 키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주변 여건으로 계속 기르기 곤란해서’가 40.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마음이 아파서’ 32.9%, ‘이상행동/위생문제 등으로 다루기 어려워서’ 25.1%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반면, ‘반려동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갈등’ 및 ‘관리비용 부담’으로 사육을 중단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20대 연령층 및 1인 가구, 단독/다가구 거주자, 월평균 299만 원 이하 가구

소득계층에서 ‘주변 여건으로 계속 기르기 곤란’하거나,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반려동물 사육을 중단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한편, 4인 이상 가구와 단독/다가구 거주자, 월평균 700만 원 이상 가구소득계층에서 ‘이상행동/위생문제 등으로 다루기 어려워’ 사육을 중단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2] 반려동물 사육 중단 이유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사육 중단 이유(복수응답)(단위 : %)							
		주변여건으로 계속 기르기 곤란해서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마음이 아파서	이상행동/위생문제 등으로 다루기 어려워	반려동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관리 비용이 부담 되어서	이웃이나 가족 구성원의 갈등	반려동물 가출/실종	기타
전 체	359	40.9	32.9	25.1	21.7	20.6	14.2	0.8	1.4
성별	남성	173	45.1	30.6	25.4	20.2	20.8	16.8	0.0
	여성	186	37.1	34.9	24.7	23.1	20.4	11.8	1.6
연령	20대	63	44.4	31.7	15.9	28.6	19.0	14.3	1.6
	30대	101	42.6	34.7	20.8	18.8	16.8	5.0	1.0
	40대	112	39.3	33.9	29.5	19.6	22.3	19.6	0.9
	50대 이상	83	38.6	30.1	31.3	22.9	24.1	18.1	0.0
가족 구성원 수	1인	32	46.9	31.3	21.9	28.1	6.3	6.3	0.0
	2인	69	39.1	43.5	15.9	13.0	13.0	7.2	0.0
	3인	98	40.8	35.7	22.4	23.5	25.5	14.3	1.0
	4인	134	40.3	25.4	30.6	24.6	23.9	20.9	1.5
	5인 이상	26	42.3	34.6	34.6	15.4	23.1	7.7	0.0
주택 형태	아파트	188	38.3	32.4	24.5	21.3	23.9	17.0	0.5
	단독/다가구	40	45.0	32.5	42.5	25.0	25.0	10.0	0.0
	연립/빌라	126	42.9	32.5	21.4	21.4	15.1	11.9	1.6
	기타	5	60.0	60.0	0.0	20.0	0.0	0.0	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92	48.9	29.3	20.7	19.6	20.7	9.8	2.2
	300~499만 원	128	39.8	29.7	25.8	21.9	23.4	14.1	0.0
	500~699만 원	92	38.0	41.3	25.0	18.5	16.3	14.1	1.1
	700만 원 이상	47	34.0	31.9	31.9	31.9	21.3	23.4	0.0

BASE : 반려동물 사육 중단자(N=359)

⑥ 반려동물 사육 경험이 없는 이유

- 질문 : 귀하께서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반려동물로 인해 주거환경이 나빠져서’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깨끗하고 건강하게 키울 자신이 없어서’ 32.4%, ‘사육비용이 부담되어

서' 28.4%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반면, '가족의 반대'나 '동물을 싫어해서' 반려동물을 사육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20~30대 연령층 및 1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사육비용 부담' 및 '반려동물 돌볼 시간 부족', '반려동물을 키울 만한 공간 부족' 등으로 사육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반면, 여성 및 40대 이상 연령층, 단독/다가구 거주자의 경우는 '반려동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를 이유로 사육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표본 특성별로 반려동물 사육 경험이 없는 이유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임

[부록 표 13] 반려동물 사육 경험이 없는 이유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사육 경험이 없는 이유(복수응답)(단위 : %)							
		반려동물로 인해 주거환경 나빠져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키울 자신이 없어서	사육 비용이 부담 되어서	반려동물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여	반려동물을 키울 만한 공간이 없어서	동물을 싫어 해서	가족의 반대	기타
전 체	148	41.9	32.4	28.4	28.4	18.9	16.2	2.0	0.7
성별	남성	62	33.9	33.9	25.8	30.6	25.8	9.7	1.6
	여성	86	47.7	31.4	30.2	26.7	14.0	20.9	0.0
연령	20대	42	23.8	40.5	40.5	35.7	19.0	9.5	7.1
	30대	31	41.9	32.3	41.9	25.8	32.3	9.7	0.0
	40대	41	53.7	34.1	14.6	29.3	9.8	22.0	0.0
	50대 이상	34	50.0	20.6	17.6	20.6	17.6	23.5	0.0
가족 구성원 수	1인	13	30.8	38.5	38.5	15.4	38.5	23.1	0.0
	2인	14	42.9	21.4	21.4	28.6	14.3	50.0	0.0
	3인	46	43.5	37.0	21.7	30.4	23.9	6.5	4.3
	4인	61	45.9	29.5	29.5	21.3	8.2	18.0	1.6
주택 형태	5인 이상	14	28.6	35.7	42.9	64.3	35.7	0.0	0.0
	아파트	85	43.5	28.2	22.4	21.2	10.6	20.0	2.4
	단독/다가구	20	50.0	25.0	25.0	45.0	25.0	15.0	0.0
	연립/빌라	43	34.9	44.2	41.9	34.9	32.6	9.3	2.3
가구 소득	기타	44	38.6	36.4	36.4	36.4	36.4	15.9	0.0
	299만 원 이하	47	44.7	36.2	34.0	29.8	23.4	12.8	0.0
	300~499만 원	35	48.6	25.7	17.1	31.4	11.4	14.3	5.7
	500~699만 원	15	46.7	33.3	20.0	40.0	6.7	26.7	0.0
	700만 원 이상	47	34.0	31.9	31.9	31.9	21.3	23.4	0.0
									6.4

BASE : 반려동물 사육 비경험자(N=148)

⑦ 향후 반려동물 사육 의향

○ 질문 : 귀하께서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워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현재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지 않은 가구 중에서 향후 반려동물을 사육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49.1%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보임

- 반면, 사육 의향이 없는 경우는 24.9%에 불과하여 향후 반려동물 사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표본 특성별 분석

- 20대 연령층 및 1인 가구 계층에서 반려동물 사육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4] 향후 반려동물 사육 의향

구 분		사례 수	향후 반려동물 사육 의향(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전혀 의향이 없다	② 별로 의향이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다소 의향이 있다	⑤ 매우 의향이 있다		
전 체		507	9.5	15.4	26.0	37.3	11.8	3.3	
성별	남성	235	8.5	11.1	28.5	41.3	10.6	3.3	2.059
	여성	272	10.3	19.1	23.9	33.8	12.9	3.2	
연령	20대	105	2.9	8.6	21.9	41.0	25.7	3.8	13.284***
	30대	132	8.3	14.4	22.7	43.2	11.4	3.3	
	40대	153	11.1	16.3	30.7	31.4	10.5	3.1	
	50대 이상	117	14.5	21.4	27.4	35.0	1.7	2.9	
가족 구성원 수	1인	45	6.7	8.9	22.2	40.0	22.2	3.6	1.564*
	2인	83	9.6	18.1	22.9	37.3	12.0	3.2	
	3인	144	9.7	13.2	25.7	38.9	12.5	3.3	
	4인	195	10.3	16.9	26.2	36.4	10.3	3.2	
	5인 이상	40	7.5	17.5	37.5	32.5	5.0	3.1	
주택 형태	아파트	273	10.3	16.8	25.3	39.2	8.4	3.2	1.880
	단독/다가구	60	3.3	16.7	33.3	35.0	11.7	3.4	
	연립/빌라	169	10.7	13.0	24.9	34.9	16.6	3.3	
	기타	5	0.0	0.0	20.0	40.0	40.0	4.2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143	11.2	12.6	25.9	35.7	14.7	3.3	0.327
	300~499만 원	175	9.7	16.0	27.4	34.9	12.0	3.2	
	500~699만 원	127	7.9	18.9	27.6	34.6	11.0	3.2	
	700만 원 이상	62	8.1	12.9	19.4	53.2	6.5	3.4	

BASE : 반려동물 비사육자(N=507), * P<0.05, ** P<0.01, *** P<0.001

⑧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경험

- 질문 :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웃이나 주변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시끄러움’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소변으로 인한 오염’ 40.2%, ‘털이 날림’ 3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는 16.1%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주로 40대 이상 연령계층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다양한 피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5인 이상 가구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다중이용 시설에서 함께 머무르기 불편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5]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경험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경험(복수응답)(단위 : %)								
		시끄러웠다	대소변으로 오염을 시켰다	털이 날렸다	다중이용 시설에서 함께 머무르기 불편	냄새가 심했다	물린 적이 있거나 위협을 가해 놀랐다	교통 사고를 냈거나 널 뻘 했다	기타	피해 경험 없음
전 체	1,014	43.5	40.2	37.3	23.5	22.5	20.3	3.6	0.2	16.1
사육 여부										
사육자	507	42.4	44.0	40.2	24.7	22.1	15.6	4.5	0.0	15.0
비사육자	507	43.8	39.3	36.5	21.9	23.9	21.5	3.4	0.2	16.4
성별										
남성	503	45.1	43.5	41.9	23.9	22.3	17.1	5.0	0.2	14.5
여성	511	41.1	39.7	34.8	22.7	23.7	20.0	2.9	0.0	16.8
연령										
20대	245	36.7	28.6	37.1	21.2	20.0	18.0	3.7	0.0	20.8
30대	283	42.0	38.9	32.2	18.7	24.4	18.0	4.2	0.0	15.5
40대	266	52.3	48.5	43.2	24.8	21.8	21.1	4.5	0.0	13.2
50대 이상	220	40.5	51.4	41.8	29.5	25.9	16.8	3.2	0.5	13.2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40.5	25.0	21.4	13.1	14.3	14.3	2.4	0.0	26.2
2인	168	47.0	41.1	33.9	19.6	21.4	17.9	3.0	0.0	12.5
3인	282	40.4	39.7	37.9	22.7	22.3	15.6	5.3	0.0	16.7
4인	390	45.6	46.7	42.6	24.9	25.9	21.8	4.1	0.3	14.1
5인 이상	90	35.6	42.2	45.6	34.4	23.3	18.9	2.2	0.0	15.6
주택 형태										
아파트	545	45.3	45.3	42.4	26.8	23.9	19.1	4.2	0.2	13.6
단독/다가구	139	33.8	40.3	30.2	18.0	25.9	21.6	2.9	0.0	22.3
연립/빌라	320	42.8	36.3	35.3	19.7	20.9	16.3	4.1	0.0	16.6
기타	10	60.0	30.0	30.0	20.0	0.0	20.0	0.0	0.0	1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36.7	31.6	30.5	17.2	20.3	20.7	3.9	0.0	22.7
300~499만 원	332	47.0	38.9	41.9	19.9	23.8	16.0	4.2	0.0	12.7
500~699만 원	276	42.4	51.1	39.5	28.6	26.4	21.4	4.0	0.0	15.6
700만 원 이상	150	46.7	47.3	42.0	31.3	19.3	15.3	3.3	0.7	10.7

BASE : 응답자 전체(N=1,014)

(2) 반려동물 사육자 실태 관련

①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을 위한 노력

- 질문 : 귀하께서는 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 ‘주기적인 예방접종과 질병 즉시 치료’가 74.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자주 목욕과 운동을 시켜준다’ 73.8%,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습성 교육과 소음을 줄이는 조치를 한다’ 54.2%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반면, ‘동물등록 및 허용된 장소 출입 등의 공중규범 준수’ 및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자료/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여성 계층 및 50대 이상 연령층, 5인 이상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올바른 사육을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6]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을 위한 노력

구 분		사례 수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을 위한 노력(복수응답)(단위 : %)					
			주기적인 예방접종 및 질병 즉시 치료	자주 목욕과 운동	남에게 피해 없도록 습성교육 및 소음을 줄이는 조치	건강에 좋고 균형 잡힌 먹이를 구해 먹임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자료와 자문 구함	동물등록, 허용된 장소 출입 등 공중 규범 준수
전 체		507	74.2	73.8	54.2	52.5	48.5	45.0
성별	남성	268	72.0	73.1	46.6	41.8	44.4	37.7
	여성	239	76.6	74.5	62.8	64.4	53.1	53.1
연령	20대	140	72.9	64.3	47.1	52.9	55.0	45.0
	30대	151	74.2	67.5	55.0	53.0	47.0	40.4
	40대	113	73.5	85.0	54.0	50.4	51.3	40.7
	50대 이상	103	76.7	83.5	63.1	53.4	38.8	56.3
가족 구성원 수	1인	39	76.9	48.7	51.3	56.4	69.2	35.9
	2인	85	71.8	75.3	55.3	55.3	50.6	44.7
	3인	138	73.2	75.4	57.2	53.6	47.8	50.0
	4인	195	70.8	72.8	52.8	45.1	44.1	39.0
	5인이상	50	92.0	90.0	52.0	70.0	48.0	62.0
주택 형태	아파트	272	76.1	77.2	55.5	51.5	49.6	45.6
	단독/다가구	79	68.4	63.3	44.3	41.8	49.4	40.5
	연립/빌라	151	73.5	74.2	57.6	58.9	45.7	46.4
	기타	5	80.0	40.0	40.0	80.0	60.0	4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113	63.7	66.4	48.7	51.3	53.1	39.8
	300~499만 원	157	77.7	75.8	50.3	47.8	41.4	44.6
	500~699만 원	149	76.5	80.5	57.7	59.1	52.3	45.0
	700만 원 이상	88	77.3	68.2	62.5	51.1	48.9	52.3

BASE : 반려동물 사육자(N=507)

② 반려동물 사육 시 어려운 점

- 질문 : 반려동물을 키우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관리비용 과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4.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외출 시 맡길 시설 부족/비용 과다’ 57.6%, ‘이웃/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31.0%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반면, ‘반려동물의 이상행동/위생문제로 다루기 어렵다’거나 ‘주변 여건 문제로 계속 기르기 곤란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관리유지비용 및 시설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임
- 표본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1인 가구에서 반려동물 사육 시 어려운 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및 5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는 ‘외출 시 맡길 시설 부족’을, 20대 연령층의 경우는 ‘주변 여건으로 계속 기르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부록 표 17] 반려동물 사육 시 어려운 점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사육 시 어려운 점(복수응답)(단위 : %)					
			반려동물 관리비용 많이 든다	여행, 외출이 어렵고 맡길 시설이 부족하고 비싸다	이웃/가족 구성원과 갈등이 있다	주변여건 문제로 계속 기르기 곤란	이상행동/ 위생문제로 다루기 어렵다	기타
전 체	전 체	507	64.9	57.6	31.0	24.9	23.7	0.4
	남성	268	62.7	51.1	32.8	26.1	27.6	0.4
성별	여성	239	67.4	64.9	28.9	23.4	19.2	0.4
	20대	140	66.4	46.4	32.1	30.7	20.7	1.4
연령	30대	151	65.6	55.6	34.4	27.8	24.5	0.0
	40대	113	62.8	58.4	29.2	23.9	32.7	0.0
	50대 이상	103	64.1	74.8	26.2	13.6	16.5	0.0
가족 구성원 수	1인	39	64.1	64.1	35.9	30.8	12.8	0.0
	2인	85	58.8	57.6	28.2	31.8	23.5	0.0
	3인	138	63.8	63.8	34.1	26.1	28.3	0.0
	4인	195	68.7	52.3	30.3	22.6	21.0	0.0
	5인 이상	50	64.0	56.0	26.0	14.0	30.0	4.0
주택 형태	아파트	272	62.1	60.3	32.4	27.9	25.4	0.4
	단독/다가구	79	70.9	45.6	24.1	17.7	24.1	1.3
	연립/빌라	151	67.5	58.3	32.5	23.2	21.2	0.0
	기타	5	40.0	80.0	20.0	20.0	0.0	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113	65.5	58.4	32.7	26.5	23.0	0.0
	300~499만 원	157	66.9	54.1	33.8	26.8	26.8	0.0
	500~699만 원	149	63.1	60.4	29.5	26.8	21.5	0.0
	700만 원 이상	88	63.6	58.0	26.1	15.9	22.7	2.3

BASE : 반려동물 사육자(N=507)

③ 반려동물 포기/유기 총동 경험

- 질문 : 현재 키우시는 반려동물의 보유를 포기하거나 유기하고픈 총동을 느낀 적 있습니까?
- 현재 반려동물 사육자 중 포기나 유기 총동 경험 비율은 42.6%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57.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10가구 중에서 4가구꼴로 반려동물 보유 포기/유기 총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남성 및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반려동물 보유 포기/유기 총동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8] 반려동물 포기/유기 총동 경험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포기/유기 총동 경험(단위 : %)			X ²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 체		507	57.4	40.6	2.0	
성별	남성	268	50.7	46.3	3.0	11.783**
	여성	239	64.9	34.3	0.8	
연령	20대	140	67.1	31.4	1.4	13.541*
	30대	151	57.6	41.7	0.7	
	40대	113	48.7	46.9	4.4	
	50대 이상	103	53.4	44.7	1.9	
가족 구성원 수	1인	39	56.4	43.6	0.0	3.341
	2인	85	62.4	36.5	1.2	
	3인	138	57.2	40.6	2.2	
	4인	195	55.4	42.6	2.1	
	5인 이상	50	58.0	38.0	4.0	
주택 형태	아파트	272	51.1	47.1	1.8	10.791
	단독/다가구	79	65.8	32.9	1.3	
	연립/빌라	151	64.2	33.1	2.6	
	기타	5	60.0	40.0	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113	61.9	36.3	1.8	1.577
	300~499만 원	157	57.3	40.8	1.9	
	500~699만 원	149	54.4	43.6	2.0	
	700만 원 이상	88	56.8	40.9	2.3	

BASE : 반려동물 사육자(N=507), * P<0.05, ** P<0.01, *** P<0.001

④ 향후 반려동물 재사육 의향

- 질문 : 현재 키우는 반려동물 이후에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습니까?
 - 반려동물 사육자 중 새로운 반려동물을 사육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8.0%로 나타났으며, 다시는 키우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5.1%에 불과해 향후 반려동물 새로운 사육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표본 특성별 분석
 - 월평균 700만 원 이상 가구소득계층의 경우 반드시 다시 키우고 싶다는 강한 긍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 299만 원 이하 가구소득계층의 경우는 절대로 다시는 키우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아 소득수준에 따른 의향의 차이를 보임

[부록 표 19] 향후 반려동물 재사육 의향

구 분	사례 수	향후 반려동물 재사육 의향(단위 : %)					χ^2
		반드시 새로운 반려동물을 다시 키우고 싶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다시 키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절대로 다시는 키우고 싶지 않다		
전 체	507	17.6	40.4	36.9	5.1		
성별	남성	268	19.4	39.9	36.6	4.1	2.321
	여성	239	15.5	41.0	37.2	6.3	
연령	20대	140	15.7	40.0	39.3	5.0	8.480
	30대	151	22.5	38.4	35.1	4.0	
	40대	113	15.9	46.0	34.5	3.5	
	50대 이상	103	14.6	37.9	38.8	8.7	
가족 구성원 수	1인	39	10.3	41.0	43.6	5.1	8.084
	2인	85	16.5	45.9	32.9	4.7	
	3인	138	17.4	41.3	35.5	5.8	
	4인	195	17.9	39.0	36.9	6.2	
	5인 이상	50	24.0	34.0	42.0	0.0	
주택 형태	아파트	272	15.8	41.9	37.1	5.1	22.303**
	단독/다가구	79	31.6	32.9	29.1	6.3	
	연립/빌라	151	13.9	43.0	38.4	4.6	
	기타	5	0.0	0.0	100.0	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113	18.6	38.9	31.9	10.6	23.269**
	300~499만 원	157	10.2	45.9	39.5	4.5	
	500~699만 원	149	18.8	41.6	36.9	2.7	
	700만 원 이상	88	27.3	30.7	38.6	3.4	

BASE : 반려동물 사육자(N=507), * P<0.05, ** P<0.01, *** P<0.001

(3)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정책 관련

① 서울시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인지 정도

- 질문 :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유기동물 등의 구조나 포획,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8%로 절반에 가까운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며,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50.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보임
- 특히, 반려동물 사육자의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1.3%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사육자의 경우는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56.2%로 나타나 반려동물 사육 여부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를 보임
- 표본 특성별 분석
- 반려동물 사육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그 밖에 성별, 연령, 가족 구성원 수, 주택형태, 가구소득에 따른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부록 표 20] 서울시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인지 정도

구 분		사례 수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인지 정도(단위 : %)			χ ²
			잘 알고 있다	들어는 봤으나 잘 모름	처음 들어 본다	
전 체		1,014	37.8	54.0	8.2	
사육 여부	사육자	507	51.3	45.4	3.4	37.700***
	비사육자	507	34.3	56.2	9.5	
성별	남성	503	40.2	54.5	5.4	5.987
	여성	511	45.4	47.2	7.4	
연령	20대	245	41.6	49.4	9.0	5.349
	30대	283	41.3	53.0	5.7	
	40대	266	46.2	48.9	4.9	
	50대 이상	220	41.8	51.8	6.4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42.9	45.2	11.9	9.170
	2인	168	44.0	48.2	7.7	
	3인	282	39.4	54.6	6.0	
	4인	390	43.3	51.3	5.4	
	5인 이상	90	48.9	46.7	4.4	
주택 형태	아파트	545	43.1	50.5	6.4	1.913
	단독/다가구	139	41.7	51.8	6.5	
	연립/빌라	320	42.2	51.6	6.3	
	기타	10	60.0	30.0	1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41.0	50.0	9.0	9.906
	300~499만 원	332	44.6	50.6	4.8	
	500~699만 원	276	45.3	50.4	4.3	
	700만 원 이상	150	37.3	53.3	9.3	

주: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와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② 외국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동물복지지원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질문 : 외국과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폭넓은 역할의 동물복지지원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92.5%로 대부분이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강한 긍정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32.7%로 3명 중 1명꼴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폭넓은 동물복지지원시설 운영에 대해 강한 긍정의 태도를 보임
 - 특히 사육자의 찬성 의견은 96.4%로 비사육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사육자 및 20대 연령층, 1인 가구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1] 외국/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동물복지지원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구 분		사례 수	서울시의 폭넓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찬성 정도 (단위 : %)				평균 (4점 척도)	T/F
			① 매우 반대	② 다소 반대	③ 다소 찬성	④ 매우 찬성		
전 체		1,014	4.6	2.8	59.8	32.7	3.2	
사육 여부	사육자	507	1.2	2.4	48.3	48.1	3.4	47.001***
	비사육자	507	5.5	3.0	62.7	28.8	3.1	
성별	남성	503	2.4	2.4	57.3	38.0	3.3	0.641
	여성	511	4.3	2.9	53.8	38.9	3.3	
연령	20대	245	0.4	0.4	57.6	41.6	3.4	5.532***
	30대	283	2.8	2.5	52.7	42.0	3.3	
	40대	266	4.9	3.0	56.8	35.3	3.2	
	50대 이상	220	5.5	5.0	55.5	34.1	3.2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1.2	0.0	48.8	50.0	3.5	3.913*
	2인	168	3.0	2.4	48.2	46.4	3.4	
	3인	282	2.8	3.5	54.6	39.0	3.3	
	4인	390	4.6	3.1	59.5	32.8	3.2	
	5인 이상	90	2.2	1.1	61.1	35.6	3.3	
주택 형태	아파트	545	3.7	2.9	57.8	35.6	3.3	2.184
	단독/다가구	139	3.6	2.9	56.1	37.4	3.3	
	연립/빌라	320	2.8	2.2	51.9	43.1	3.4	
	기타	10	0.0	0.0	40.0	60.0	3.6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2.3	2.3	52.3	43.0	3.4	1.716
	300~499만 원	332	2.7	2.1	57.8	37.3	3.3	
	500~699만 원	276	3.6	2.9	57.2	36.2	3.3	
	700만 원 이상	150	6.0	4.0	52.7	37.3	3.2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③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입장 및 역할에 대한 태도

- 질문 : 반려동물 사육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정부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는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비율은 55.2%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육자의 경우 ‘반려동물 사육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정부 관심이 필요

한 분야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70.6%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표본 특성별 분석

- 사육자 및 여성, 20~30대 연령층, 월평균 500~699만 원 가구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2] '반려동물 사육은 시민복지 관점에서 정부 관심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사육은 시민복지의 관점에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비동의	② 다소 비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5.3	10.9	28.6	41.0	14.2	3.5	
사육 여부								
사육자	507	3.6	5.1	20.7	40.8	29.8	3.9	63.015***
비사육자	507	5.7	12.4	30.6	41.0	10.3	3.4	
성별								
남성	503	5.8	11.1	23.9	43.1	16.1	3.5	9.689**
여성	511	3.5	6.5	27.4	38.7	23.9	3.7	
연령								
20대	245	2.9	7.3	23.7	42.4	23.7	3.8	7.087***
30대	283	3.2	5.7	26.5	44.2	20.5	3.7	
40대	266	5.6	7.9	26.7	39.5	20.3	3.6	
50대 이상	220	7.3	15.5	25.5	36.8	15.0	3.4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0.0	3.6	33.3	36.9	26.2	3.9	1.476
2인	168	4.8	12.5	22.0	39.9	20.8	3.6	
3인	282	6.0	4.6	27.3	41.8	20.2	3.7	
4인	390	4.9	11.0	23.8	43.1	17.2	3.6	
5인 이상	90	3.3	10.0	27.8	34.4	24.4	3.7	
주택 형태								
아파트	545	5.5	9.5	23.5	42.6	18.9	3.6	0.709
단독/다가구	139	3.6	8.6	28.8	41.7	17.3	3.6	
연립/빌라	320	3.4	7.8	27.8	38.8	22.2	3.7	
기타	10	10.0	0.0	30.0	10.0	50.0	3.9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5.5	9.0	29.3	34.8	21.5	3.6	2.624*
300~499만 원	332	4.5	8.7	25.0	45.5	16.3	3.6	
500~699만 원	276	2.5	7.2	24.6	41.7	23.9	3.8	
700만 원 이상	150	7.3	11.3	22.7	40.0	18.7	3.5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질문 : 개별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 기능만으로는 정부 역할이 부족하다는 입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비율은 50.4%로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

하는 경우는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육자의 경우 ‘개별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 기능만으로는 정부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62.3%로 나타나, 정부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표본 특성별 분석

- 사육자 및 여성 계층에서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 기능 이상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3] ‘개별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 기능만으로는 정부 역할 부족’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개별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 기능만으로는 정부 역할이 부족하다”(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비동의	② 다소 비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2.0	11.9	35.7	38.5	11.9	3.5	
사육 여부								23.933***
	사육자	507	2.2	8.1	27.4	43.2	19.1	3.7
	비사육자	507	2.0	12.8	37.9	37.3	10.1	3.4
성별								4.298*
	남성	503	2.4	11.7	33.0	40.6	12.3	3.5
	여성	511	1.8	9.2	32.3	39.9	16.8	3.6
연령								0.787
	20대	245	2.4	9.8	35.9	32.7	19.2	3.6
	30대	283	1.8	8.8	34.6	40.3	14.5	3.6
	40대	266	2.3	8.6	30.8	45.1	13.2	3.6
	50대 이상	220	1.8	15.5	28.6	42.7	11.4	3.5
가족 구성원 수								0.408
	1인	84	0.0	10.7	34.5	33.3	21.4	3.7
	2인	168	1.8	13.7	33.3	33.9	17.3	3.5
	3인	282	3.5	9.9	25.5	49.3	11.7	3.6
	4인	390	1.5	10.8	34.9	39.0	13.8	3.5
	5인 이상	90	2.2	4.4	42.2	35.6	15.6	3.6
주택 형태								2.124
	아파트	545	2.8	11.4	31.6	42.0	12.3	3.5
	단독/다가구	139	1.4	9.4	34.5	37.4	17.3	3.6
	연립/빌라	320	1.3	9.4	34.4	38.4	16.6	3.6
	기타	10	0.0	10.0	10.0	40.0	40.0	4.1
가구 소득								1.311
	299만 원 이하	256	3.1	12.1	34.8	32.8	17.2	3.5
	300~499만 원	332	2.1	9.6	33.7	43.4	11.1	3.5
	500~699만 원	276	0.4	10.1	31.5	41.3	16.7	3.6
	700만 원 이상	150	3.3	10.0	28.7	44.0	14.0	3.6

주: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질문 : 정부/서울시의 동물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비율은 60.1%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육자의 경우 ‘정부/서울시가 동물보호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70.6%로 나타나, 서울시/정부 차원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표본 특성별 분석
 - 사육자 및 여성 계층, 1인 가구에서 서울시/정부 차원에서의 동물보호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4] '정부/서울시가 동물보호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필요'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중앙정부/서울시가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비동의	② 다소 비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3.3	8.5	28.1	48.0	12.1	3.6	
사육 여부								
사육자	507	1.6	4.9	22.9	46.5	24.1	3.9	42.518***
비사육자	507	3.7	9.5	29.4	48.3	9.1	3.5	
성별								
남성	503	3.2	8.9	27.4	47.7	12.7	3.6	12.29***
여성	511	2.2	5.5	24.9	47.2	20.4	3.8	
연령								
20대	245	2.0	6.9	28.2	46.1	16.7	3.7	2.159
30대	283	1.4	6.0	24.7	51.2	16.6	3.8	
40대	266	3.0	6.8	23.7	50.0	16.5	3.7	
50대 이상	220	4.5	9.5	28.6	40.9	16.4	3.6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0.0	6.0	19.0	53.6	21.4	3.9	2.070*
2인	168	1.8	7.1	28.0	46.4	16.7	3.7	
3인	282	4.6	5.0	22.0	53.2	15.2	3.7	
4인	390	2.6	9.2	29.7	42.3	16.2	3.6	
5인 이상	90	1.1	6.7	26.7	47.8	17.8	3.7	
주택 형태								
아파트	545	3.7	7.9	26.1	45.1	17.2	3.6	0.928
단독/다가구	139	1.4	5.0	29.5	49.6	14.4	3.7	
연립/빌라	320	1.6	7.2	24.7	50.6	15.9	3.7	
기타	10	0.0	0.0	30.0	40.0	30.0	4.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2.7	7.0	25.0	47.7	17.6	3.7	0.502
300~499만 원	332	2.7	5.4	27.7	51.2	13.0	3.7	
500~699만 원	276	2.2	7.6	26.1	44.6	19.6	3.7	
700만 원 이상	150	3.3	10.7	24.7	44.0	17.3	3.6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질문 : 공공차원의 올바른 사육관리 교육 및 갈등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비율은 80.9%로 상당수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러한 결과는 사육자 및 비사육자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할 만한 기능으로 보임
- 표본 특성별 분석
 - 여성 계층에서 공공차원의 올바른 사육관리 교육 및 갈등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부록 표 25] '공공차원의 올바른 사육관리 교육 및 갈등조정 기능 필요'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공공차원에서 올바른 사육관리 교육/갈등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비동의	② 다소 비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0.6	2.7	15.8	47.1	33.8	4.1	
사육 여부								
사육자	507	0.8	2.4	17.4	49.3	30.2	4.1	1.565
비사육자	507	0.6	2.8	15.4	46.5	34.7	4.1	
성별								
남성	503	0.8	3.4	18.7	47.3	29.8	4.0	7.380**
여성	511	0.6	1.8	14.1	48.5	35.0	4.2	
연령								
20대	245	0.4	2.9	20.8	45.3	30.6	4.0	0.694
30대	283	0.4	2.1	17.7	48.1	31.8	4.1	
40대	266	1.1	2.6	14.7	46.6	35.0	4.1	
50대 이상	220	0.9	2.7	11.8	52.3	32.3	4.1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0.0	3.6	19.0	38.1	39.3	4.1	0.548
2인	168	1.2	2.4	18.5	47.0	31.0	4.0	
3인	282	1.1	2.8	15.6	43.3	37.2	4.1	
4인	390	0.5	2.8	16.7	50.0	30.0	4.1	
5인 이상	90	0.0	0.0	11.1	64.4	24.4	4.1	
주택 형태								
아파트	545	0.7	2.8	15.4	49.4	31.7	4.1	0.251
단독/다가구	139	0.7	0.7	18.0	48.9	31.7	4.1	
연립/빌라	320	0.6	3.1	17.5	45.0	33.8	4.1	
기타	10	0.0	0.0	10.0	50.0	40.0	4.3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1.6	3.1	21.9	41.4	32.0	4.0	1.893
300~499만 원	332	0.0	2.4	15.7	48.8	33.1	4.1	
500~699만 원	276	0.4	2.5	13.8	49.3	34.1	4.1	
700만 원 이상	150	1.3	2.0	13.3	54.7	28.7	4.1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질문 :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전염병 관리, 피해상담 등)이 존재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비율은 75.9%로 상당수가 동의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러한 결과는 사육자 및 비사육자 모두 동의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할 만한 기능으로 보임
- 표본 특성별 분석
 - 여성 계층에서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공차원에서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6]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 존재(전염병 관리, 피해 상담 등)'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소비자 피해상담, 전염병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비동의	② 다소 비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0.8	3.0	20.4	49.5	26.4	4.0	
사육 여부	사육자	507	0.8	2.2	19.7	45.6	31.8	4.1
	비사육자	507	0.8	3.2	20.5	50.5	25.0	4.0
성별	남성	503	1.0	2.6	25.0	44.9	26.4	3.9
	여성	511	0.6	2.7	15.3	51.1	30.3	4.1
연령	20대	245	0.4	1.2	24.1	46.5	27.8	4.0
	30대	283	0.7	2.8	18.4	51.9	26.1	4.0
	40대	266	1.1	3.0	19.5	47.7	28.6	4.0
	50대 이상	220	0.9	3.6	18.6	45.0	31.8	4.0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0.0	3.6	21.4	41.7	33.3	4.0
	2인	168	0.6	1.2	23.2	43.5	31.5	4.0
	3인	282	1.4	3.2	19.5	46.8	29.1	4.0
	4인	390	0.8	3.1	20.5	50.5	25.1	4.0
	5인 이상	90	0.0	1.1	13.3	55.6	30.0	4.1
주택 형태	아파트	545	1.1	2.9	20.4	49.2	26.4	4.0
	단독/다가구	139	0.7	2.9	17.3	45.3	33.8	4.1
	연립/빌라	320	0.3	2.2	20.9	47.5	29.1	4.0
	기타	10	0.0	0.0	20.0	40.0	40.0	4.2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1.6	3.1	23.0	44.1	28.1	3.9
	300~499만 원	332	0.0	2.1	22.0	48.2	27.7	4.0
	500~699만 원	276	0.4	2.5	17.0	52.2	27.9	4.0
	700만 원 이상	150	2.0	3.3	16.7	46.7	31.3	4.0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질문 :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예산보다는 시민복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비율은 41.2%이고, 보통이라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역시 41.3%로 비슷한 비중을 보임
 - 비사육자의 경우는 시민복지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44.2%로 사육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비사육자 및 4인 가구계층에서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예산보다는 시민복지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7]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예산보다는 시민복지가 우선'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시민복지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비동의	② 다소 비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3.3	14.1	41.3	28.2	13.0	3.3	
사육 여부								
사육자	507	10.1	18.3	41.8	21.5	8.3	3.0	45.576***
비사육자	507	1.6	13.0	41.2	30.0	14.2	3.4	
성별								
남성	503	4.2	14.7	43.5	25.8	11.7	3.3	2.700
여성	511	7.4	16.6	39.5	25.6	10.8	3.2	
연령								
20대	245	4.5	15.5	42.4	27.3	10.2	3.2	0.743
30대	283	6.0	13.4	47.3	26.5	6.7	3.1	
40대	266	6.4	17.7	39.5	22.6	13.9	3.2	
50대 이상	220	6.4	16.4	35.5	26.8	15.0	3.3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6.0	22.6	41.7	20.2	9.5	3.0	5.566**
2인	168	10.7	19.0	38.7	26.2	5.4	3.0	
3인	282	5.0	15.6	41.8	26.2	11.3	3.2	
4인	390	4.4	11.5	41.5	28.7	13.8	3.4	
5인 이상	90	5.6	21.1	45.6	15.6	12.2	3.1	
주택 형태								
아파트	545	6.1	11.9	42.8	25.7	13.6	3.3	2.573
단독/다가구	139	5.8	19.4	38.8	25.2	10.8	3.2	
연립/빌라	320	5.3	20.0	41.3	25.6	7.8	3.1	
기타	10	10.0	30.0	20.0	40.0	0.0	2.9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8.2	16.4	42.2	22.3	10.9	3.1	1.695
300~499만 원	332	3.3	17.5	43.4	27.4	8.4	3.2	
500~699만 원	276	6.2	13.0	44.9	23.2	12.7	3.2	
700만 원 이상	150	6.7	15.3	30.0	32.7	15.3	3.3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질문 : 공공의 역할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공공의 역할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46.8%로 나타난 반면, 중립적 태도(36.7%)와 비동의 태도(16.5%)를 보인 경우는 합계 53.2%로 나타남. 중립적 의견을 감안하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사육자의 경우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38.3%에 불과하여,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 기능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사육자 및 1~2인 가구, 연립/빌라 거주자에서 ‘공공의 역할은 자치구 동물 보호센터 운영 정도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기능 이상의 역할을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됨

[부록 표 28] '공공의 역할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도로 충분'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공공의 역할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도로도 충분”(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비동의	② 다소 비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2.2	14.3	36.7	34.3	12.5	3.4	
사육 여부	사육자	507	7.9	20.1	33.7	29.4	8.9	3.1
	비사육자	507	0.8	12.8	37.5	35.5	13.4	3.5
성별	남성	503	2.8	15.7	37.4	32.6	11.5	3.3
	여성	511	5.9	17.2	33.9	32.3	10.8	3.2
연령	20대	245	3.7	15.5	37.6	33.5	9.8	3.3
	30대	283	5.7	17.3	37.8	29.0	10.2	3.2
	40대	266	4.5	17.3	34.2	33.1	10.9	3.3
	50대 이상	220	3.2	15.5	32.3	35.0	14.1	3.4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6.0	22.6	34.5	29.8	7.1	3.1
	2인	168	8.9	20.8	32.7	32.1	5.4	3.0
	3인	282	2.5	17.0	39.0	28.4	13.1	3.3
	4인	390	3.8	14.1	34.1	35.4	12.6	3.4
	5인 이상	90	2.2	11.1	37.8	35.6	13.3	3.5
주택 형태	아파트	545	2.4	15.6	37.2	31.7	13.0	3.4
	단독/다가구	139	2.9	18.0	27.3	40.3	11.5	3.4
	연립/빌라	320	7.8	17.5	36.6	30.6	7.5	3.1
	기타	10	20.0	10.0	30.0	20.0	20.0	3.1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7.4	16.4	31.6	34.4	10.2	3.2
	300~499만 원	332	2.1	16.3	38.9	34.3	8.4	3.3
	500~699만 원	276	3.6	18.1	37.3	27.9	13.0	3.3
	700만 원 이상	150	5.3	14.0	32.0	33.3	15.3	3.4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질문 : 공공사업 추진시설의 직접 설치보다는 민간/동물보호단체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공공사업 추진시설의 직접 설치보다는 민간/동물보호단체 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44.9%로 나타난 반면, 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17.2%로 나타나, ‘민간/동물보호단체 시설 활용’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비사육자의 경우에서 ‘민간/동물보호단체 시설 활용’에 동의하는 비율이 사육자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비사육자 및 2~4인 가구에서 ‘민간/동물보호단체 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9] ‘공공사업 추진시설은 직접 설치보다는 민간/동물보호단체 시설 활용’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공공사업 추진시설의 경우 민간시설/동물보호단체 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바동의	② 다소 바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2.0	15.2	37.8	36.5	8.4	3.3	
사육 여부	사육자	507	5.9	17.0	39.3	31.2	6.7	3.2
	비사육자	507	1.0	14.8	37.5	37.9	8.9	3.4
성별	남성	503	3.2	13.1	42.1	34.4	7.2	3.3
	여성	511	3.7	18.6	34.6	34.6	8.4	3.3
연령	20대	245	2.9	19.2	41.2	30.6	6.1	3.2
	30대	283	4.2	15.9	38.5	34.3	7.1	3.2
	40대	266	3.8	15.8	35.7	37.6	7.1	3.3
	50대 이상	220	2.7	12.3	38.2	35.5	11.4	3.4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7.1	19.0	47.6	26.2	0.0	2.9
	2인	168	6.0	12.5	39.3	36.9	5.4	3.2
	3인	282	2.1	17.4	36.9	34.4	9.2	3.3
	4인	390	2.8	14.4	36.9	37.2	8.7	3.3
	5인 이상	90	2.2	21.1	38.9	26.7	11.1	3.2
주택 형태	아파트	545	3.1	15.4	38.2	34.1	9.2	3.3
	단독/다가구	139	2.2	12.9	38.1	39.6	7.2	3.4
	연립/빌라	320	4.1	18.4	39.1	32.5	5.9	3.2
	기타	10	20.0	0.0	30.0	50.0	0.0	3.1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5.1	16.8	38.7	31.6	7.8	3.2
	300~499만 원	332	3.3	14.2	43.7	32.2	6.6	3.2
	500~699만 원	276	2.2	18.8	33.3	36.6	9.1	3.3
	700만 원 이상	150	3.3	12.7	35.3	40.7	8.0	3.4

주: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④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중요 역할

- 질문 :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정부(국가, 서울시, 자치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반려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가 44.6%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전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은 31.6%

로 그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비사육자의 경우 ‘반려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가 사육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반면, ‘편리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는 사육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사육자 및 20~30대 연령층의 경우 ‘편리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비사육자 및 5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는 ‘반려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30]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중요 역할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중요 역할(단위 : %)			X ²
			반려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	학대/전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편리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역할	
전 체		1014	44.6	31.6	23.8	
사육 여부	사육자	507	24.1	34.9	41.0	86.629***
	비사육자	507	49.9	30.8	19.3	
성별	남성	503	37.2	30.2	32.6	4.047
	여성	511	36.8	35.4	27.8	
연령	20대	245	29.0	35.9	35.1	29.411***
	30대	283	32.5	30.7	36.7	
	40대	266	39.8	33.1	27.1	
	50대 이상	220	48.2	31.8	20.0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41.7	25.0	33.3	4.449
	2인	168	35.7	34.5	29.8	
	3인	282	37.2	34.0	28.7	
	4인	390	36.2	34.1	29.7	
	5인 이상	90	37.8	27.8	34.4	
주택 형태	아파트	545	36.7	33.9	29.4	1.755
	단독/다가구	139	36.0	33.1	30.9	
	연립/빌라	320	37.5	31.3	31.3	
	기타	10	50.0	20.0	3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38.7	31.6	29.7	6.073
	300~499만 원	332	39.8	31.9	28.3	
	500~699만 원	276	34.4	36.2	29.3	
	700만 원 이상	150	32.7	30.7	36.7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⑤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직접 운영 시 우선 담당 사업

- 질문 : 만약 서울시가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복지지원시설이 우선적으로 담당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 ‘전염병 예방 접종 및 사육 동물 치료’가 1순위 기준으로 31.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기본소양교육 강화 등을 통한 정보 제공’ 29.2%, ‘구조(포획) 및 보호 동물 인수’ 20.9%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장례시설’ 및 ‘사료나 용품 구입’, ‘소비자 피해상담’ 등은 낮은 우선순위를 보임
- 표본 특성별 분석
 - 20대 연령층 및 1인 가구의 경우 ‘기본소양 교육 강화를 통한 정보 제공’을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50대 이상 연령층 및 5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전염병 예방 접종 및 사육 동물 치료’를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31]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직접 운영 시 우선 담당 사업

구 분		사례 수	서울시가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직접 운영 시 우선 담당 사업 (1+2순위, 단위 : %)								
			전염병 예방 접종 및 사육 동물 치료	기본 소양 교육 강좌 통한 정보 제공	구조 (포획), 보호 동물 인수	반려 동물 훈련/ 습성화 교육	여행/ 장기 출타 시 반려 동물 관리	소비자 피해 상담	믿을 수 있는 사료/ 용품 구입	장려 시설	필요 사업 없다
전 체		1,014	31.7	29.2	20.9	5.1	4.5	4.1	1.2	0.4	2.7
사육 여부	사육자	507	61.3	43.4	42.6	16.2	18.7	4.1	8.3	3.4	0.8
	비사육자	507	57.8	43.4	41.6	17.9	12.8	14.2	3.6	1.8	3.2
성별	남성	503	60.2	45.1	41.2	17.3	14.5	8.7	5.4	2.2	2.6
	여성	511	58.9	41.7	43.1	16.8	17.0	9.6	6.5	2.9	1.4
연령	20대	245	52.2	48.2	49.0	15.1	17.1	6.5	8.2	0.8	0.8
	30대	283	60.8	41.0	41.7	19.8	16.3	9.5	5.7	2.5	1.1
	40대	266	61.7	43.2	38.7	20.3	14.7	10.5	4.1	1.5	2.6
	50대 이상	220	63.6	41.4	39.1	11.8	15.0	10.0	5.9	5.9	3.6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59.5	47.6	40.5	16.7	15.5	11.9	4.8	3.6	0.0
	2인	168	59.5	45.8	46.4	18.5	17.3	4.2	5.4	1.8	0.6
	3인	282	64.9	37.6	40.4	15.6	15.2	9.6	5.7	4.3	3.2
	4인	390	54.6	45.9	43.3	18.2	14.1	9.2	6.7	1.8	2.6
	5인 이상	90	64.4	42.2	35.6	14.4	22.2	14.4	5.6	1.1	0.0
주택 형태	아파트	545	58.3	42.6	40.4	17.2	16.3	9.9	5.9	2.9	2.9
	단독/다가구	139	63.3	46.8	40.3	18.7	14.4	7.2	5.8	1.4	0.7
	연립/빌라	320	59.1	43.8	45.9	16.6	15.6	8.4	5.9	2.5	0.9
	기타	10	90.0	30.0	40.0	0.0	10.0	20.0	10.0	0.0	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59.4	41.8	42.6	17.2	15.2	9.4	7.0	3.5	1.6
	300~499만 원	332	61.7	41.3	42.8	14.5	16.0	8.7	6.3	2.1	3.0
	500~699만 원	276	57.6	48.2	41.7	19.9	13.8	9.1	5.1	2.2	1.1
	700만 원 이상	150	58.7	42.0	40.7	17.3	20.0	10.0	4.7	2.7	2.0

주: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⑥ 선진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인근지역 설치에 대한 태도

- 질문 : 거주하는 곳 인근에 외국 같은 동물복지지원시설이 들어선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는 의견이 34.2%로 10명 중 3~4명꼴로 찬성 의견을 보임
- 특히 사육자의 경우는 찬성 비율이 54.3%로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비사육자는 29.0%만이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대조를 보임

- 비사육자의 경우는 중립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5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반대 입장은 15.8%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볼 때 인근에 선진 동물복지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표본 특성별 분석

- 사육자 및 20~30대 연령층, 단독/다가구 거주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32] 선진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인근지역 설치에 대한 태도

구 분		사례 수	인근에 선진 동물복지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태도(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절대 반대	② 다소 반대	③ 중립	④ 다소 찬성	⑤ 매우 찬성		
전 체		1,014	4.4	9.4	52.0	28.6	5.6	3.2	
사육 여부	사육자	507	1.6	4.7	39.4	36.9	17.4	3.6	99.273***
	비사육자	507	5.1	10.7	55.2	26.4	2.6	3.1	
성별	남성	503	2.6	9.3	48.9	31.6	7.6	3.3	3.136
	여성	511	4.1	6.1	45.8	31.7	12.3	3.4	
연령	20대	245	0.4	6.1	40.8	40.4	12.2	3.6	13.894***
	30대	283	1.1	4.6	50.9	31.8	11.7	3.5	
	40대	266	4.5	8.6	49.2	29.7	7.9	3.3	
	50대 이상	220	8.2	12.3	47.7	24.1	7.7	3.1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0.0	7.1	50.0	25.0	17.9	3.5	1.466
	2인	168	0.6	7.7	52.4	29.8	9.5	3.4	
	3인	282	3.9	7.1	47.5	31.2	10.3	3.4	
	4인	390	4.6	8.7	45.9	32.8	7.9	3.3	
	5인 이상	90	4.4	5.6	41.1	37.8	11.1	3.5	
주택 형태	아파트	545	4.8	8.4	46.6	31.7	8.4	3.3	2.713*
	단독/다가구	139	2.2	6.5	45.3	35.3	10.8	3.5	
	연립/빌라	320	1.6	6.9	49.7	30.6	11.3	3.4	
	기타	10	0.0	10.0	40.0	10.0	40.0	3.8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1.2	9.0	44.1	32.8	12.9	3.5	1.767
	300~499만 원	332	3.0	6.9	53.0	30.7	6.3	3.3	
	500~699만 원	276	4.7	7.2	46.4	29.7	12.0	3.4	
	700만 원 이상	150	5.3	8.0	42.0	35.3	9.3	3.4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주 :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가구 기준 사육 비율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3_설문조사 문항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정책현안에 관한 조사·분석·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통하여 서울시정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도시정책 종합연구기관입니다.

서울시민은 이미 다섯 가구당 한 가구꼴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반려동물 보유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웃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심지어 기르던 동물을 길거리에 내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버려진 반려동물을 포획하여 보호하고 치료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입양하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기르도록 교육하고 사육포기 동물을 인수받아 입양하는 등의 역할을 할 공적 처리기관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서울시 정부는 아무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기르도록 유도하고 동물로 인해 시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할 공적 기반시설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조사수행기관 : ㈜씨서치플러스

■ 응답자 기초사항

SQ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SQ3	거주 지역	① 종로구 ⑤ 광진구 ⑨ 강북구 ⑬ 서대문구 ⑰ 구로구 ⑲ 관악구 ㉓ 강동구	② 중 구 ⑥ 동대문구 ⑩ 도봉구 ⑭ 마포구 ⑱ 금천구 ㉒ 서초구	③ 용산구 ⑦ 중랑구 ⑪ 노원구 ⑮ 양천구 ⑲ 영등포구 ㉑ 강남구	④ 성동구 ⑧ 성북구 ⑫ 은평구 ⑯ 강서구 ㉒ 동작구 ㉔ 송파구

Part A. 반려동물 사육 경험 관련

※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뜻이며,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과거 불리던 “애완동물”을 대신하여 부르는 용어이며,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페럿, 햄스터, 새, 파충류, 물고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A1. 귀하께서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 A1-1번으로)
 ② 과거엔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고 있다 (☞ A2번으로)
 ③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다 (☞ A3번으로)

A1-1. 귀하께서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또는 ② 복수응답 가능)

- ① 개(강아지) ② 고양이
 ③ 기타 (토끼, 기니피그, 페럿, 햄스터, 새, 파충류, 물고기 등) (☞ 조사 중단)

※ 이후 질문에 대해서 반려동물로서 사람에게 보다 더 친숙하고 일반적인 개(강아지)와 고양이만을 대상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 귀하께서는 반려동물(개 또는 고양이)을 어떤 계기로 키우게 되었습니까? (단수응답)

- ① 아이들 정서상의 교육 목적으로 ② 예쁘고 귀여워서
 ③ 외로워서 ④ 선물을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⑤ 유기견/동물들이 불쌍해서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응답 후 A5번으로 이동)

A2.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다가 현재 키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예방접종, 질병치료, 사료구입 등 관리 비용이 부담되어서
 ②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이나 가족구성원의 갈등 때문에
 ③ 잦거나 집안을 어지럽히는 등 이상행동, 위생문제 등으로 다루기 어려워서
 ④ 공간 협소나 돌볼 시간 부족, 이사 등의 여건으로 계속 기르기 곤란해서
 ⑤ 여행이나 외출 등이 어렵고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⑥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마음이 아파서 ⑦ 반려동물 가출/실종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응답 후 A4번으로 이동)

A3. 귀하께서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깨끗하고 건강하게 키울 자신이 없어서
- ② 반려동물로 인해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털이 많이 뽀핍, 아기 알레르기 등)
- ③ 사육비용이 부담되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④ 반려동물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여
- ⑤ 반려동물을 키울 만한 공간이 없어서
- ⑥ 동물을 싫어해서
- ⑦ 가족의 반대
-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응답 후 A4번으로 이동)

(☞ A1번에서 ②, ③ 응답자에게만 A4번 질문)

A4. 귀하께서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워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의향이 없다 ② 별로 의향이 없다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의향이 있다 ⑤ 매우 의향이 있다

(☞ A5번 모두에게 질문)

A5. 귀하께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웃이나 주변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해 경험이 있는 내용 **모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냄새가 심했다 ② 털이 날렸다
- ③ 시끄러웠다 ④ 대소변으로 오염을 시켰다
- ⑤ 물린 적이 있거나 위협을 가해 놀랐다 ⑥ 교통사고를 냈거나 낼 뻔했다
- ⑦ 공원, 식당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데려와 함께 머무르기가 불편했다
-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⑨ 피해를 본 적이 전혀 없다

Part B. 반려동물 보유자 관련

(☞ Part B는 문A1번에서 ①번 반려동물 사육자에게만 질문)

B1. 귀하께서는 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반려동물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자료를 찾고, 자문을 구한다
- ②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질병은 즉시 치료한다
- ③ 자주 목욕과 운동을 시킨다
- ④ 건강에 좋고 균형 잡힌 먹이를 구해서 먹인다
- ⑤ 가족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습성교육을 시키고 소음을 줄이는 조치를 한다
- ⑥ 동물등록, 허용된 장소 출입 등 공중규범을 준수한다.
- ⑦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B2. 반려동물을 키우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예방접종, 질병치료, 사료구입 등 돈이 많이 든다
- ② 이웃이나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가족구성원과 갈등이 있다
- ③ 거칠거나 이상행동, 위생문제 등으로 다루기 어렵다
- ④ 경제력 감소, 공간 협소, 돌볼 시간 부족, 이사 등의 문제로 계속 기르기가 곤란하다
- ⑤ 여행, 외출 등이 어렵고 맡길 시설이 부족하고 비싸다
-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B3. 현재 키우는 반려동물의 보육을 포기하거나 유기하고픈 충동을 느낀 적 있습니까? (단수응답)

- ① 전혀 없다 ② 가끔 있다 ③ 자주 있다

B4. 현재 키우는 반려동물 이후에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습니까? (단수응답)

- ① 반드시 새로운 반려동물을 다시 키우고 싶다
- ②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다시 키울 가능성이 높다
- ③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 ④ 절대로 다시는 키우고 싶지 않다

Part C.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관련 정책

(※ Part C는 반려동물 보유자 및 비보유자 모두에게 질문)

C1. 유기동물은 주인의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된 동물을 뜻합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유기동물 등의 구조나 포획,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동물보호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수응답)

-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 ③ 처음 들어 본다

C2. 외국과 민간부문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보다 폭넓은 역할을 하는 동물복지지원시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동물복지지원시설의 기능 예시

- ✓ 서울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 유기동물 포획·보호·치료 등
- ✓ 서울 민간단체 : 유기동물 입양카페, 동물보호 교육 및 상담, 동물병원, 시민 커뮤니티센터 등
- ✓ 일본 동물애호상담센터 : 동물 인수·입양, 사육자 교육 및 상담, 전염병 통제관리센터 등
- ✓ 미국 ASPCA : 동물사육 상담, 포기동물 인수, 입양, 학대조사/감시, 동물병원(저소득층 할인)

-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③ 다소 반대 ④ 매우 반대

C3. 귀하께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부의 여러 입장이나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매우 비동의	다소 비동의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1)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시민 복지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2	3	4	5
2) 현재 개별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의 포획·보호) 기능만으로는 정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1	2	3	4	5
3)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보호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4) 반려동물이 늘면서 개 짖는 소리, 배설물 문제 등으로 이웃 간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어 공공차원에서 올바른 사육관리 교육 및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5) 소비자 피해상담, 전염병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과 같이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시민복지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5
7) 반려동물은 키우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공공의 역할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도로 충분하다	1	2	3	4	5
8)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시설이 있다면 정부가 직접 설치하지 말고 민간시설이나 동물보호단체 시설을 빌려 사용한다	1	2	3	4	5

C4.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정부(국가, 서울시, 자치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단수응답)

정부(공공)의 역할	주요 내용
① 반려동물 학대나 전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포기동물 인수, 학대동물 구조 등
② 반려동물을 편리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역할	반려동물의 번식 및 판매(분양), 치료, 사료, 보험, 교육 등 관련 업종 육성
③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이 주변의 반려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	유기·길거리동물 포획·보호, 갈등 조정, 반려동물 등록 등

C5. 만약 서울시가 외국의 사례와 같이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복지지원시설이 **우선적으로 담당할 사업**을 순서대로 3개까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반려동물을 잘 기르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교육 강좌 등을 통한 정보제공 | ③ 전염병 예방 접종 및 사육 동물 치료 |
| ② 구조(포획), 보호 동물 인수 | ⑤ 믿을 수 있는 사료나 용품 구입 |
| ④ 반려동물 훈련이나 습성화 교육 | ⑦ 소비자 피해 상담 |
| ⑥ 여행이나 장기출타 시 반려동물 관리 | ⑨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 ⑧ 장례시설 | |
| ⑩ 필요 사업이 없다 | |

C6. 거주하는 곳 인근에 **외국 같은 동물복지지원시설이 들어선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반대 ② 다소 반대 ③ 중립 (기능/역할을 보고 결정)
④ 다소 찬성 ⑤ 매우 찬성

※ 마지막으로 통계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작성해 주신 통계 분류를 위한 응답자 특성 정보는 조사 결과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 변수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다른 용도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으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DQ1. 귀댁에서는 총 몇 분이 함께 살고 계신가요? 본인 포함 총 (명)

DQ2. 귀댁의 주택형태는 무엇인가요?

- ① 아파트 ② 단독/다가구 ③ 연립/빌라/다세대 주택 ④ 기타 ()

DQ3. 귀댁의 주택 건평(분양면적)은 몇 평입니까? (마당, 정원 등과 같은 건물 이외의 공간은 제외)

- ① 10평(33㎡) 미만 ② 10평(33㎡) ~ 20평(66㎡) 미만
③ 20평(66㎡) ~ 30평(99㎡) 미만 ④ 30평(99㎡) ~ 40평(132㎡) 미만
⑤ 40평(132㎡) ~ 50평(165㎡) 미만 ⑥ 50평(165㎡) 이상

DQ4.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199만 원 ③ 200~299만 원 ④ 300~399만 원
⑤ 400~499만 원 ⑥ 500~599만 원 ⑦ 600~699만 원 ⑧ 700만 원 이상

DQ5. 귀하께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 경영/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전문기술직
⑤ 판매/서비스직 ⑥ 단순노무/생산/단순기술직 ⑦ 자영업 ⑧ 주부
⑨ 학생 ⑩ 기타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